

수출규제 관련 중국동향(8.9)

□ [주요 언론 동향]

- 중국신문망(中国新闻网)은 일본의 對韓 첨단소재 수출 승인 건이 한국에 대한 경고이며 한국수출에 대한 엄격한 심사가 확대될 수도 있음을 인용 보도¹⁾
- 일본 경제산업상 세코 히로시게는 기존 수출규제 품목 외 수출상품도 부당하게 사용된다면 수출관리 범위를 더욱 확대할 것이라고 언급
- 또한 한국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여 일본은 언제든지 특정상품에 수출규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, 시행세칙을 수정하여 향후 수출규제 품목을 추가할 수도 있다고 보도
- 중국CCTV(央视网)는 한국 측은 일본이 경제적으로 압박하여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고 있다고 여기며, 한국 국내의 반일감정이 고조되고 있음을 보도²⁾
- 한국 시민들의 반일 시위와 일본상품 불매운동을 소개하고 군사 분야의 독도방어 훈련 일정 검토,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(GSOMIA) 재검토 등 이슈를 언급
- 참고소식망(参考消息网)은 뉴욕타임즈의 글을 인용하여 한일 양국의 갈등이 심화됨에도 미국이 개입을 꺼리고 있음을 보도³⁾
- 미국이 개입을 꺼리는 원인은 ① 한일 갈등이 무역 뿐 아니라 역사문제와도 관련되어 있고 ② 양국 정상들이 국제적인 리더쉽 발휘와 희생을 원치 않고 있으며 ③ 마지막으로 아시아에서 미국의 지도적 역할이 약화되었기 때문이라고 언급

1) 「收紧出口限制后首次放行 日本降低对韩贸易攻势力度?」, 中国新闻网(2019. 8. 9)

2) 「韩日争端 抵日情绪高涨 韩方抗议“经济报复”」, 『央视』(2019. 8. 9)

3) 「美媒: 三大原因致使美调停日韩矛盾无效」, 『参考消息』(2019. 8. 9)